

세조 어진의 두 봉안처*

- 영창전과 봉선전의 성격과 제향의 의미 -

손 명 희**

1. 머리말
2. 세조 사후 어진 봉안·제작의 배경과 전승
3. 세조 어진의 봉안처, 영창전과 봉선전의 성격과 기능
 - 1) 영창전, 다례가 행해진 최초의 혼전
 - 2) 봉선전, 진전사원 전통의 계승과 혼전 기능의 수용
4. 영창전·봉선전 제향이 후대 진전 제향에 미친 영향
5. 맺음말

1. 머리말

수양대군(首陽大君)으로 널리 알려진 세조(世祖, 1417-1468, 재위 1455-1468)는 본인의 형제와 많은 신하를 죽인 정변을 통해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아 조선의 제7대 국왕이 되었다. 정당성이 결여된 세조의 집권 과정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 인식에도 사후 재조공덕(再造功德)을 인정받으며 ‘세조(世祖)’란 묘호(廟號)가 올려지고 건국 군주인 태조(太祖, 1335-1408, 재위 1392-1398)처럼 어진(御眞)을 봉안한 외방진전(外方眞殿)이 건립되었다.¹⁾

* 본고는 필자가 기획한 국립고궁박물관 테마전시 『세조』(2018.10.22.-2019.1.13.)의 연계 특별강연(2018.11.9.)에서 “세조 어진의 봉안과 숭배, 그 의미”란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관.

1) 『睿宗實錄』 권1, 예종 즉위년 9월 24일 庚辰, 세조에 대해서는 왕권과 국방을 강화하고 국

임진왜란 때 경복궁 내 어진 봉안처인 선원전(璿源殿)이 불타 모든 어진이 소실된 가운데 외방진전에 모셔진 태조와 세조의 어진만이 간신히 살아남으며 현재까지 두 임금의 얼굴 모습이 전해지고 있다.²⁾ 그런데 세조 진전(眞殿)은 태조 진전의 제도를 준용하면서도 왕릉 원찰(願刹) 옆에 위치한 입지 조건으로 제한에 있어 일부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으며, 조선 왕조 진전 최초로 다례(茶禮)가 행해졌다. 별도의 진전 설립도 조선 전기에 태조를 제외하고 유일한 사례였는데, 세조 진전에 어진을 봉안하면서 이례적으로 혼전(魂殿)인 영창전(永昌殿)에도 동시에 어진을 봉안하였다.

본고는 세조 어진이 조선 전기에서도 유례없이 혼전과 외방진전에 동시에 봉안된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두 봉안처가 갖는 의례 공간으로서의 성격과 기능, 두 장소에 어진을 봉안한 의미, 그리고 영창전과 봉선전 의례의 상호 연계성 및 이들 의례가 조선 후기 진전 의례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논해 볼 것이다. 이 같은 논의에 앞서 세조 어진의 혼전과 진전 봉안이란 이례적 사건을 가능하게 한 배경과 동인을 고찰하고 세조 사후 행해진 세조 어진 제작과 전래 과정을 간단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2. 세조 사후 어진 봉안·제작의 배경과 전승

현전하는 문헌에서 찾아지는 세조 어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469년 9월 3일

정운영의 기본 원칙이 되는 통일적인 법전 체제를 확립했다는 점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집권과정의 정당성 결여로 왕권강화에만 급급해 고위 관원층의 비대화와 특권적 지위의 세습이 확대됐다는 부정적 평가가 공존한다. 최승희, 1997 『세조대 왕위의 취약성과 왕권강화책』 『조선시대사학보』 1, 7-67면; 오종록, 2013 『세조의 즉위과정과 정치문화의 변동』 『인문과학연구』 31, 289-332면.

- 2) 조선시대 왕의 초상화를 일컫기 위해 眸容, 御容, 影子, 影幀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했는데 숙종 대인 1713년부터 御眞이 왕의 초상화를 지칭하는 대표적 용어로 쓰였다. 동 논고에서는 조선 국왕의 초상화를 일컬을 때는 어진을 사용하되, 문맥상 이해가 필요한 경우 원사료에 쓰인 용어를 따르도록 하겠다. 왕의 초상화를 지칭하는 용어와 어진이란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承政院日記』 권477, 정조 17년 5월 6일 丁酉; 조선미, 1983 『한국의 초상화』, 열화당, 146-148면 참조.

영창전과 승은전(崇恩殿)에 세조 어진을 봉안한 것이다.³⁾ 영창전은 1468년 11월 28일 세조의 시신을 왕릉에 매장한 후부터 1470년 12월 16일 종묘(祔廟) 이전까지 세조의 신위(神位)를 모신 혼전 건물로 창경궁 내에 위치했다.⁴⁾ 한편, 승은전(이후 봉선전)은 경기도 양주 광릉(光陵)의 원찰인 봉선사(奉先寺) 동쪽에 세운 진전이다.⁵⁾ 조선 전기 유교 국가로서 기틀을 잡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왕실 제향에 신주가 아닌 초상의 사용은 불교와 도교의 전통이며 진전은 유교의 제도가 아닌 것으로 비판받았다.⁶⁾ 이러한 조선 전기의 사회문화적 상황으로 태조를 제외한 조선 전기 왕 중 사후에 어진이 지방의 진전 혹은 혼전 등 궁궐 내 전각에 봉안되고 제향이 행해진 사례는 세조가 유일하다.

태조의 경우 생전 영흥부·경주·평양에 어진이 모셔졌으며 사후 전주와 개성에 추가적으로 봉안되었는데, 태조 사후 이들 5곳의 외방진전(外方眞殿)에서는 정기적인 제향이 행해졌다.⁷⁾ 태조 어진의 궁궐 내 봉안은 태조의 혼전인 문소전에 모신 신주를 부묘한 후, 문소전을 태조의 원묘(原廟)로 삼고 진용(眞容)을 모시면서 이뤄졌다.⁸⁾ 태조 어진에 대한 진전과 원묘 봉안은 조선이 설립된 지 20년도 채 되지 않은 초기에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으나 아직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고려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⁹⁾

3) 『睿宗實錄』 권7, 예종 1년 9월 3일 癸未.

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 『동국여지비고 제1권』, ‘경도’(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5) 승은전은 1472년에 봉선전(奉先殿)으로 개호(改號)하였다. 『成宗實錄』 권15, 성종 3년 2월 14일 辛巳.

6) 『太宗實錄』 권10, 태종 5년 12월 19일 辛巳. 태종과 세종 또한 제사에 있어 영정의 사용은 옛 제도, 즉 유교 제도가 아닌 그런 것으로 보았다. 『世宗實錄』 권55, 세종 14년 1월 16일 丙子; 1월 18일 戊寅.

7) 조선 전기 태조어진의 제작과 태조 진전 운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조진미, 앞의 책; 조인수, 2004 『조선 초기 태조 어진의 제작과 태조 진전의 운영: 태조·태종 대를 중심으로』 『미술사와 시각문화』 3, 116-153면.

8) 『太宗實錄』 권16, 태종 8년 8월 7일 壬午.

9) 세종 대 이계전은 고려 때 선왕(先王)·선후(先后)의 진전에 사사(寺社)를 두는 것이 상례(常例)가 되었기 때문에 태조가 환조(桓祖)의 진영을 흥천사(興天寺)에 봉안했으며 3년 동안 아버지의 도에 고침이 없어야 효도라 할 수 있다는 전(傳)을 따라 태종도 구문소전에 불당을 둔 것이라고 논하였다. 『世宗實錄』 권121, 세종 30년 7월 18일 壬寅. 궁궐 내

태조의 외방진전은 지속되었으나, 궐내 원묘이자 진전의 성격을 띤 문소전은 국가 의례에 대한 유교적 정비가 진행되면서 세종 대 경내에 위치한 불당과 함께 폐지되었다.¹⁰⁾ 세종은 태조와 태종의 원묘인 문소전과 광효전을 통합한 새로운 문소전을 경복궁 북쪽에 세우고 원묘의 봉안 대상을 신주로 통일하였다. 이때 구문소전에 봉안하던 태조와 신의왕후 초상은 왕실 초상과 족보 등의 봉안소인 선원전으로 옮겨졌다.¹¹⁾ 태종과 세종 대에 걸쳐 진행된 각종 의례 제도의 유교적 정비를 고려할 때, 세조 사후 궐내 혼전과 외방진전에 세조 어진을 봉안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같은 예외적 조치를 가능하게 한 배경과 동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조 어진의 봉안과 제작, 봉안 장소 등에 대한 기록 및 당대의 정치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김수온(金守溫, 1410-1481)의 『봉선사기(奉先寺記)』는 세조 왕릉[광릉] 남쪽에 봉선사를 짓고 그 동편에 진전을 세울 것을 명한 이로 정희왕후(貞熹王后, 1418-1483)를 명시하고 있다.¹²⁾ 세조 재위 기간 중 빈번히 거행된 연회(宴會)와 강무(講武), 능행(陵行)과 순행(巡幸) 등에 세조는 정희왕후와 함께 임석했으며 근신(近臣)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이 왕후에게 알현(謁見)하도록 하였다.¹³⁾ 세조의 신뢰와 존중 속에서 정희왕후는 세조 연간 국정을 주시하며 직간접적으로 정

초상을 모신 원묘의 설치에 고려 때 경령전(景靈殿)의 전통을 따른 것이나, 의례의 규모와 위계는 달라하였다. 고려대 경령전에 대해서는 김철웅, 2009 『고려 경령전의 설치와 운영』 『정신문화연구』 32(1), 101-127면 참조.

10) 『世宗實錄』 권59, 세종 15년 2월 16일 庚子.

11) 원묘를 새롭게 짓고 봉안 대상을 신위관으로 통일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1432년 이뤄졌으며 1433년 신문소전을 세워 태조와 태종의 신위관을 이안했다(『世宗實錄』 권55, 세종 14년 1월 6일 丙寅; 1월 18일 戊寅; 권60, 세종 15년 5월 3일 乙卯). 세종 대인 1430년에 종부시 서쪽에 선원전을 세워 조종의 수용과 선원록을 봉안하다가, 1437년 신문소전을 세우면서 경복궁 문소전 북쪽에 작은 전각을 짓고 이를 선원전으로 삼았다(『世宗實錄』 권50, 세종 12년 11월 22일 己未; 권76, 세종 19년 2월 2일 壬戌). 세종 대 세워진 선원전은 선원록과 조종의 수용을 봉안하였으나 제향은 행해지지 않은 주장처의 성격을 지녔다.

12) 金守溫, 『拭疣集』 권2, 『記類』, 『奉先寺記』;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1, 京畿, 楊州牧. 김수온의 기문에서 정희왕후는 “大王大妃”로 지칭되고 있어 성종 대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13) 김태영, 1994 『朝鮮초기 世祖王權의 專制性에 대한 一考察』 『한국사연구』 87, 138-239면 및 박수진, 2018 『세조연간 정희왕후의 정치 활동』,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1-40면 참조.

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¹⁴⁾ 예종 즉위 후 왕대비가 된 정희왕후는 세조 대에 형성한 원훈대신(元勳大臣)과의 밀접한 관계와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상당한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였다.¹⁵⁾ 세조와 더불어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정희왕후의 영향력은 세조의 국상 절차에 불교적 요소가 반영되도록 했으며, 세조 왕릉 옆에 원찰인 봉선사와 세조 진전의 건설을 이끌었다.¹⁶⁾

『봉선사기』에 따르면 정희왕후는 원찰인 봉선사가 둔덕으로 왕릉과 막혀있기에 세조의 혼령이 불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절 곁에 진전[승은전]을 세우도록 명했다.¹⁷⁾ 진영을 사용한 조상 숭배는 불교에서 발전한 형태이며 진전 사원에서의 왕실 조상 숭배는 불교를 국교로 한 고려 왕조의 특징적 예제이다.¹⁸⁾ 1469년(예종 1) 9월 3일 이뤄진 영창전과 승은전에의 세조 어진 봉안이 호불군주(好佛君主)였던 세조와 그의 사후 국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정희왕후의 친불교적 성향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¹⁹⁾ 또한, 세조 일대를 걸쳐 중용되고 예종 대에도 원상(院相)으로 국정을 돌본 한명회·구치관·신숙주 등 원훈대신들과 정희왕후의 각별한 관계와 협력은 혼전과 진전 사원에 세조 어진을 봉안하는 불교식 왕실 조상 숭배를 가능하게 한 배경이었을 것이다.²⁰⁾

14) 박수진, 위의 논문, 41-42면.

15) 함부로 형벌을 가해 사람을 죽인 이덕량에 대한 면제와 봉선사를 조성한 관리에 대한 논상을 명했는데, 이들 사안에 대한 신료들의 반발에 예종은 대비의 명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어 예종 대 정희왕후의 정치적 위상을 엿볼 수 있다(『睿宗實錄』 권7, 예종 1년 8월 24일 乙亥; 8월 26일 丁丑; 9월 23일 癸卯; 9월 28일 戊申). 예종 즉위년 정희왕후의 오빠인 윤사분(尹士旻, 1401-1471)이 우의정에 오르며 척신을 형성했다. 『睿宗實錄』 권2, 예종 즉위년 12월 20일 丙午.

16) 세조의 국상 절차에 반영된 불교적 요소에 대한 논의는 최나래, 2014 『조선 초기 세조 국상 연구』 『역사민속학』 45, 182-187면 참조.

17) 金守溫, 『拭疣集』 권2, 『記類』, '奉先寺記.'

18) 허홍식, 1984 『佛敎와 融合된 高麗王室의 祖上崇拜』 『동방학지』 45, 55-56면.

19) 세조의 호불 성향과 숭불 정책에 대해서는 권연웅, 1993 『세조대의 불교정책』 『진단학보』 75, 197-218면 참조. 정희왕후 또한 신실한 불교신자로 세조와 함께 명산대찰을 유람하였으며, 사경을 발원하거나 불교사원의 재건축에도 관여했다. Kyungwon Choe, 2010 "Marginalized yet Devoted: Buddhist Paintings Commissioned by Nuns of the Early Joseon Palace Cloisters," Ph.D. diss., University of Kansas, p.15; 박수진, 앞의 논문, 37-39면.

영창전과 승은전에 각각 봉안된 세조 어진의 제작 시점을 알려주는 명확한 문헌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태조와 태종, 세종의 어진과 소헌왕후의 영정이 생전에 제작된 전례(前例)나 성종 대 청정(聽政) 중인 정희왕후의 영정을 제작해 대내(大內)로 들인 기록 등을 고려할 때 생전에 세조 어진이 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²¹⁾ 정희왕후의 영정은 1472년 봄 성종이 최경과 안귀생에게 소헌왕후·세조·예종·의경왕[덕종]의 영정을 그리도록[奉畫] 명할 때 함께 제작되었다.²²⁾ 동년 3월에서 5월에 걸쳐 정희왕후가 경복궁에 거둥해 소헌왕후(1395-1446)의 영정을 수차례 봉심(奉審)하고 있는데, 소헌왕후 영정을 참조해 본인의 영정을 제작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²³⁾ 이와 유사한 양상으로

- 20) 세조 만년에 병이 위중하게 되자 세자에게 국정을 신속주·한명회·구치관 등 원훈대신과 협의해 처리토록 한 원상제(元喪制)가 예종 대에도 지속되었다(김태영, 앞의 논문, 141면). 정희왕후는 세조의 우익이었던 원훈대신과 밀접했으며, 성종 대 청정을 하면서 원상인 신속주·한명회·구치관을 국정을 함께 처리할 인물로 지명하기도 했다(한춘순, 2002 『성종 초기 정희왕후의 정치 청단과 훈척 정치』 『조선시대사학보』 22, 33-34면). 한명회와 구치관은 봉선사 영건 시 도제조로 역할 했는데, 승려 학열과 학조가 영전을 헐려고 하는 것을 막기도 하였다. 『睿宗實錄』 권6, 예종 1년 6월 27일 己卯.
- 21) 태조·정종·태종·세조·소헌왕후의 초상화가 생전에 제작된 사실은 『太祖實錄』 권13, 태조 7년 2월 26일 癸卯; 『定宗實錄』 권2, 정종 1년 8월 12일 己酉; 『太宗實錄』 권3, 태종 2년 2월 15일 戊辰; 『世宗實錄』 권106, 세종 26년 10월 22일 丁卯 등. 정희왕후 영정을 대내로 들인 사실은 『成宗實錄』 권18, 1472년 5월 19일 참조. 정희왕후가 조선 최초의 왕대비로 성종 초기 실권을 장악한 인물이지만 남편인 세조의 초상이 생전에 제작되지 않았다면 본인의 초상을 수렴청정 기간 동안 제작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신민규는 『成宗實錄』 1472년 6월 3일의 기록에서 “더욱이 최경 등이 이미 世祖朝에 先王의 御容을 그렸음에도 끝내 당상관에 제수하지 아니하셨으니”란 대목만을 근거로 세조 어진이 생전에 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신민규, 2020 『世祖御眞 保存의 歷史와 그 形迹』 『미술사연구』 39, 121면). 필자도 세조 어진이 생전에 제작되었다란 주장에는 동의하나, 해당 기사와 유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追慕錄序』를 대조할 때 해당 대목의 선왕이 의경왕(덕종)을 가리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해당 기사에 나오는 先王이 모두 세조를 지칭하기 보다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保閑齋集』 권15, 『追慕錄序』.
- 22) 성종은 1472년 봄 최경과 안귀생에게 소헌왕후·세조·예종의 영정과 의경왕의 영정을 그리도록 명했으며 동년 여름 소헌왕후·세조·예종의 영정은 선원전에, 의경왕 영정은 월산대군의 집으로 이안했다. 정희왕후의 영정은 선원전과 월산대군의 집으로 선왕·선후의 어용(御容)을 이안할 당시 대내로 들여졌다. 『保閑齋集』 권15, 『永慕錄序』 및 『成宗實錄』 권18, 1472년 5월 19일.

즉위 5년을 맞는 1459년 세조가 선원전에서 태조·태종·공순왕[목종]의 영정을 받들어 대대로 가져오도록 명한 기록은 당시 선왕의 사례를 참조해 세조 어진이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해준다.²⁴⁾

1472년 세조 어진을 비롯한 선왕·선후 어용(御容)의 제작과 이안에 대한 기록은 세조 어진의 제작과 전래 과정 등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1472년 제작된 왕실 초상화는 정희왕후, 고인이 된 남편 세조 및 요절한 두 아들 덕종(1438-1457)과 예종(1450-1469, 재위 1468-1469), 시어머니인 소헌왕후의 영정이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영정 제작이 청정 중인 정희왕후의 주도로 이뤄졌음을 알려준다. 십대 초반인 성종(1457-1494, 재위 1469-1494) 즉위 후 1476년까지의 청정 기간 동안 정희왕후는 “평일에는 비록 작은 공사일지라도 내가 본 후에 주상께서 자세히 살펴보았으니”란 발언처럼 국정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²⁵⁾ 특히, 예종의 상제(喪制), 성종의 친부(親父) 의경세자[덕종]의 추존과 종묘 부모 등 의례 및 왕실 관련 논의는 정희왕후가 직접 참여하며 본인의 뜻을 관철시켰다.²⁶⁾ 1472년 세조와 덕종을 비롯한 선왕 선후 영정의 제작을 비롯해 1473년 덕종 영정의 의묘 봉안, 1475년 덕종 부모 후 의묘 영전(影殿)에 안치된 영정의 선원전 이안 결정의 주체자도 정희왕후였음이 짐작된다.²⁷⁾

23) 『成宗實錄』 권16, 성종 3년 3월 12일 戊申; 3월 29일 乙丑; 권18, 성종 3년 5월 11일 丁未.

24) 『世祖實錄』 권18, 세조 5년 11월 27일 乙巳.

25) 『成宗實錄』 권63, 성종 7년 1월 13일 戊午. 성종 초기 정희왕후가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정국을 안정시키고 어린 성종의 통치기반을 확립한 데 대한 연구는 김우기, 2001 『조선 성종대 정희왕후의 수렴청정』 『조선사연구』 10, 169-212면 및 한춘순, 앞의 논문, 29-74면 참조.

26) 1470년 1월 대비인 정희왕후의 전교(傳敎)로 이뤄진 대신의 논의에 따라 생부를 의경왕(懿敬王)으로 추승하고 별도의 사당(別廟)을 세우기로 결정한 바 있다(『成宗實錄』 권2, 성종 1년 1월 18일 丁酉). 이후 정희왕후는 1472년 12월 별묘인 의묘(懿廟)를 연경궁(延慶宮) 후원에 세울 것을 결정하고, 이듬해 1월 직접 거동해 해당 장소를 살피기도 했다(『成宗實錄』 권25, 성종 3년 12월 2일 甲子; 권26, 성종 4년 1월 21일 壬子). 더 나아가 1745년 의경왕의 추존과 종묘 부모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예문관 관리와 연관들의 반대 에 왕실 측근 세력의 주장을 편들며 덕종이란 묘호를 올려 신주를 종묘에 부모하고 신위관을 연은전에 봉안하는 것을 관철시킨 이도 정희왕후였다. 『成宗實錄』 권59, 성종 6년 9월 19일 乙丑; 9월 25일 辛未; 김우기, 위의 논문, 188면.

27) 『成宗實錄』 권60, 성종 6년 10월 21일 丁酉; 권63, 성종 7년 1월 11일 丙辰.

1472년 제작된 덕종 영정은 1457년 9월 의경세자(덕종)가 급작스런 죽음을 맞이하자 세조가 화사 최경과 안귀생을 급히 불러들여 그린 초도(草圖)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²⁸⁾ 세조의 둘째 아들인 예종 또한 세조 사후 즉위한 지 14개월 만에 20세란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사망했기에 덕종의 경우처럼 간략한 초도 외에는 정식 영정이 당시까지 제작되지 못했을 개연성이 높다. 한편, 1472년 제작된 소현왕후·세조·예종 영정을 선원전에 봉안한 기록에서 새롭게 그려진 소현왕후와 세조 영정이 기존 선원전 봉안본을 모본으로 했으며, 세조 어진의 모본은 1470년 12월 영창전이 폐지된 후 선원전으로 이안된 것임을 알 수 있다.²⁹⁾ 1472년 당시 영창전본의 경우 선원전에 이안된 지 2년 남짓 밖에 안 된 시점이란 점에서 영창전본이 세조 생전에 그려진 것으로 세월의 흐름에 따른 퇴색으로 소현왕후 영정과 함께 재제작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³⁰⁾

세조를 포함한 선왕·선후의 어용 제작이 진행된 1472년 봄은 예종의 삼년상이 끝남에 따라 예종과 장순왕후(1445-1462)의 신주를 동년 정월 춘향대제(春享大祭) 때 종묘에 부묘하고 양위(兩位)의 신위판을 문소전에 모신 직후이다.³¹⁾ 선원전에 선왕 선후의 순서에 맞춰 봉안할 채색과 장황을 갖춘 예종 어진 제작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자 국가적 어진 제작 사업을 수행할 적기이기도 하였다. 이 같은 시점에 정희왕후는 선왕이자 둘째 아들인 예종과 현왕의 친부이자 첫째 아들인 덕종의 영정을 제작하고 남편인 세조와 시어머니 소현왕후의 영정을 다시 그리며 본인의 영정도 제작하는 대규모 왕실 영정 제작 사업을 이끈 것이다.³²⁾ 1472년 세조를 비롯한 선왕·선후의 어용 제작은 왕명으로 공식적으

28) 『保閑齋集』 권15, 『追慕錄序』.

29) 성종 대 제작된 세조 어진은 멀리 떨어진 양주 봉선전의 어진보다는 창경궁 영창전에 봉안했다가 선원전으로 이안된 어진을 모본으로 삼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또한, 완성된 세조 어진이 선원전에 다시 봉안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30) 소현왕후 영정은 1444년에 그려져 30년이 다 되었기에 다시 그릴 필요성도 있었지만 정희왕후 영정을 제작하기 위한 명분으로도 작용했을 것이다.

31) 『成宗實錄』 권11, 성종 2년 7월 5일 丙子; 권14, 성종 3년 1월 9일 丙午; 1월 13일 庚戌.

32) 당시 소현왕후를 비롯한 선왕·선후의 어용(御容)을 그리는데[奉畫] 참여한 화원은 별제 최경과 안귀생을 주축으로 10여명이 넘었다. 이들 화사들은 정희왕후 영정 제작에도 참여하였을 것이다. 『成宗實錄』 권18, 성종 3년 5월 25일 辛酉, 최경과 안귀생을 선왕·

로 작성된 신숙주의 『영모록기(永慕錄記)』와 『추모록서(追慕錄序)』를 통해 유주(幼主)인 성종의 애모(哀慕)의 마음과 효심으로 정당화되었으며, 성종의 효심을 선양(宣揚)하는 대표적 예로 찬양되었다.³³⁾ 정희왕후와 긴밀한 협조 관계 속에서 성종 초 국정을 이끌어간 원상(院相) 중 한명인 신숙주의 글은 정희왕후와 성종의 편에서 대규모의 왕실 영정 제작과 최경과 안귀생에 대한 당상관 제수의 명령을 성종의 지극한 효심으로 정당화함으로써 왕권과 왕실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조 어진은 4년 후 다시 그려졌는데, 이때도 최경과 안귀생이 화원으로 참여했다.³⁴⁾ 성종과 정희왕후를 비롯한 삼대비가 작업이 행해진 경복궁 덕응방(德應房)에 친히 거동해 세조 어진을 봉심(奉審)했으며 제작 완료 후 선원전으로 이안하였다.³⁵⁾ 1476년 이후 조선 전기 동안 세조 어진의 제작 관련 기록은 더 이상 찾아지지 않는다.

선후의 어용을 그린 것에 대한 공로로 당상관에 제수하자 관원들의 상소와 반대 여론이 연이었다. 이같이 격론이 일어나자 정희왕후가 친히 참여해 논란을 매듭지었는데, 성종의 입장을 강력하게 변론하고 반대 여론을 수용하면서도 여론에 지나침이 있음을 지적해 국왕의 권위를 보호하였다. 『成宗實錄』 권18, 1472년 5월 26일 壬戌; 5월 27일 癸亥; 5월 28일 甲子; 5월 29일 乙丑; 6월 1일 丙寅; 6월 3일 戊辰; 6월 4일 己巳.

33) 신민규는 1472년의 선왕 선후 영정 제작을 성종이 자신의 정통성과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신숙주가 『영모록서』와 『추모록서』를 통해 성종의 왕실 영정 제작을 요순의 치도(治道)에 비교하고 세조 이래의 종통과 혈통을 모두 계승했음을 찬양했다고 해석했다(신민규, 앞의 논문, 120-121면). 이 같은 주장은 사료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신숙주의 글은 소현왕후·세조·예종 어용의 제작과 의경왕(덕종) 어용의 제작을 성종의 효심과 애모의 마음으로 정당화하고 듣는 이를 모두 감회시키는 성종의 효심을 칭송하고 있다. 신숙주, 『保閑齋集』 권15, 『永慕錄序』 및 『追慕錄序』; 『成宗實錄』 권22, 1472년 9월 4일.

34) 1476년의 세조 어진 관련 기록에는 “덕응방에서 세조 어진을 고쳐 그리다(修繪世祖眞于德應房)”와 “세조 어용을 본떠 그린 안귀생·최경·배연을 승직시켜 서용하고(世祖御容模畫安貴生崔涇裴連陞職敍用)”라고 되어 있다. 修繪가 기존 어진의 채색 등을 고쳐 그린 것을 뜻하는지 새롭게 고쳐 그린 것을 의미하는지 해석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뒤이은 실록 기록의 모호한 화원 5인(안귀생, 최경, 배연, 백종린, 이장손)에 대한 승직 및 서용 명령은 당시 세조 어진의 모본이 새롭게 제작되었을 가능성에 비중을 두게 한다. 『成宗實錄』 권67, 성종 7년 5월 5일 丁未; 5월 27일 己巳.

35) 『成宗實錄』 권67, 성종 7년 5월 5일 丁未; 5월 12일 甲寅; 5월 24일 丙寅.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세조 어진은 영창전과 승은전 봉안본, 1472년과 1476년의 모사본 등 적어도 4점이 제작되었다. 정희왕후는 세조 진전을 영건하고 세조의 첫 기일 직전 영창전과 승은전에 어진을 봉안하며 1472년과 1476년 세조 어진을 다시 제작하는 등 일련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이었다. 한편, 진전인 봉선전(奉先殿, 구 승은전) 봉안본을 제외한 세조 어진은 모두 선원전에 봉안되었다. 그리고 선원전에 이안된 영창전 봉안 세조 어진을 비롯한 1472년과 1476년의 모사본은 임진왜란(1592-1598) 때 일어난 경복궁 화재로 다른 왕실 초상화들과 함께 소실되었다.³⁶⁾

봉선전 봉안 세조 어진은 봉선전 참봉 오윤겸(吳允謙, 1559-1636), 봉선사의 중 삼행(三行), 광릉 참봉 이이첨(李爾瞻, 1560-1623) 등의 노력으로 태조 진전의 어진과 더불어 임진왜란의 병화를 피한 유일한 조선 전기 국왕의 초상화가 되었다.³⁷⁾ 이후, 정묘호란과 병자호란까지 세 번의 전란에서도 극적으로 살아남은 세조 어진은 숙종 때까지 지속된 보수 작업과 영조 대의 모사본 제작을 통해 보존되었으며 1908년까지 조선 후기 열성 어진을 위한 공식 진전인 영희전의 제2실에 자리하며 국가 제향의 대상이 되었다.³⁸⁾ 외방에 세조 진전을 진립하도록 한 정희왕후의 명령은 세조 어진이 조선 왕조의 마지막까지 전승되어 국가 제향

36) 임진왜란 당시 선원전 봉안 왕실 수용(眸容) 대다수가 소실된 사실은 『永禧殿志』 권1, 「創建」.

37) 봉선전 봉안 세조 어진의 전승 내력에 대한 기존 연구는 신재근, 2017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세조어진초본〉 고찰」 『고궁문화』 10, 69-92면 및 신민규, 앞의 논문, 122-128면 참조. 『宣祖實錄』 권36, 선조 26년 3월 16일 辛未; 오윤겸의 활약에 대해서는 오희문(채현경 옮김), 2018 『쇄미록』 2, 80-82면 참조 및 신민규, 앞의 논문, 123면에서 재인용. 외방에 위치한 다섯 곳의 태조 진전 중 함경도 영흥부의 준원전, 전주 경기전, 경주 집경전에 봉안된 어진들은 임진왜란의 병화를 면했다. 집경전 어진은 이후 강원도 강릉에 집경전을 다시 세워 봉안되었으나 1631년 화재로 다시 소실되었다. 『燃藜室記述』, 「影殿」; 『光海君日記』 권146, 1619년 11월 26일.

38) 수차례 행해진 수보에도 봉선전 봉안본의 훼손이 심해지자 영조의 명으로 1735년 모사본이 제작되었으며, 1872년에는 훼손이 심한 원본을 세초(洗草)해 1735년의 모사본만이 영희전에 봉안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35년 이왕직은 부분이 없는 세조 어진의 모사를 진행했다. 1735년과 1935년에 제작된 세조 어진은 모두 부산 용두산 화재 때 소실되었다. 세조 어진의 전래 과정은 신재근, 앞의 논문, 72-75면 참조. 향사이정(享祀釐正)을 통해 영희전이 국가제향에서 폐지된 것은 『純宗實錄』 권2, 순종 1년 7월 23일 참조.

의 대상으로 숭배되도록 한 주요 요인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1954년 부산 용두산 화재로 세조 어진은 6.25 전쟁을 피해 옮겨진 수십 점의 다른 어진과 함께 소실되었으나, 1935년 이왕직의 의뢰로 김은호(金殷鎬, 1892-1979)가 1735년의 모사본을 토대로 세조 어진을 모사할 당시 제작한 초본이 전해진다(그림 1).³⁹⁾ <세조 어진 초본>은 경기전 소장 <태조 어진>과 같이 엄격한 좌우 대칭 구도 속에 곤룡포에 익선관 차림을 한 세조가 정면을 응시하며 앉아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동 초본은 범본이 된 1735년의 어진 모사 시 전란과 세월에 따른 퇴색으로 봉선전본의 필획이 지속적으로 결실된 상황을 반영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장년(壯年)의 세조 모습을 보여준다.⁴⁰⁾



〈그림 1〉 <세조어진초본>, 1935년,
종이에 먹, 186.5x131.8cm,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세조 사후 이뤄진 세조 어진의 봉안과 제작을 정희왕후가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실과 진전을 건립하고 혼전과 진전에 세조 어진을 동시에 봉안한 점, 봉안 시기가 조선의 기본 예전(禮典)인 『국조오례의』(1474년) 편찬 5년 전이란 점은 조선 시대 혼전과 진전 의례의 성립과 발달에 있어 복합적인 양상을 드러낸다. 다음 장에서는 영창전과 봉선전에 대한 의례 공간으로서의 성격과 어진 봉안의 의미, 영창전과 봉선전 의례가 이후 혼전과 진전 의례 정립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39)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세조 어진 초본>은 서울옥션블루 경매에 출품된 것으로, 김은호의 후손이 소장했던 것이다. 신재근, 앞의 논문, 69면 각주1 및 『서울옥션블루 경매도록』(2016.11.22.), 출판번호 97.

40) 신민규, 앞의 논문, 137-142면 및 149-152면 참조. 봉선전본이 생전 제작되었는지 혹은 생전 제작한 영창전본을 봉선전 봉안 전 이모한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려우나 생전의 모습을 담고 있다 하겠다.

3. 세조 어진의 봉안처, 영창전과 봉선전의 성격과 기능

1) 영창전, 다례가 행해진 최초의 혼전

영창전은 세조 사후 광릉에서 장사를 지낸 후 경복궁 내 옛 경희전(景禧殿)의 전호를 '영창'으로 하고 세조의 신주를 모시면서 혼전이 되었다.⁴¹⁾ 세조의 첫 기일 5일전 승은전과 함께 세조의 어진을 봉안했는데, 이는 유불(儒佛)이 혼용된 고려 시대의 혼전 제도를 상기시킨다.⁴²⁾ 그러나 진영(眞影)을 봉안하다가 왕 또는 왕비가 타계한지 1주기가 되는 시기에 봉안 진영을 진전 사원으로 옮기고 신주를 봉안한 고려의 혼전과 달리, 영창전은 첫 기일 직전 세조 어진을 모셔 이후 신주와 어진을 동시에 봉안하게 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면 왜 정희왕후는 조선 왕조에서 전례 없이 유교식 예제의 공간인 혼전에 세조 어진을 모시고자 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조선 시대 국가 의례에서 혼전이 지닌 장소적 성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록 신주를 모시고 우제(虞祭)·사시와 납일의 친향(四時及臘親享)·담제(禫祭) 등 유교식 제사가 거행되나, 혼전은 왕의 시신을 모신 빈전처럼 아침과 저녁에 유밀과와 떡 등 상식(上食)을 올려 망자(亡者)를 살아 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섬기는 과도기적 상례의 단계를 보여주는 의례 공간이었다.⁴³⁾ 조선의 혼전에서는 낮 12시(午正)에 차와 떡, 과일 등의 다과를 올리는 주다례(晝茶禮)와

41) 『睿宗實錄』 권1, 예종 즉위년 9월 20일 丙子; 1468년 9월 22일 戊寅; 1468년 9월 25일 辛巳. 구 경희전은 현덕왕후의 혼전으로 쓰인 건물이다. 문종 사후, 현덕왕후의 신주를 慈善堂에 옮겨 봉안하고 전호를 경희전이라 칭했다. 『文宗實錄』 권2, 문종 즉위년 7월 1일 癸卯; 『端宗實錄』 권1, 단종 즉위년 6월 20일 辛巳.

42) 고려 성종대 이후 유교식 예제를 수용해 혼전(魂殿) 제도를 마련하면서 불교식 예제를 가미해 유불이 혼용되는 모습을 보였다. 고려대 선종 10년(1093)을 기점으로 혼전에 진영을 봉안하던 것에서, 처음에는 진영(眞影)을 봉안했다가 타계한지 1주기가 되는 소상(小祥)을 맞이해 신주를 봉안하고 봉안한 진영을 진전사원으로 옮기는 상례가 자리 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혼전에 대해서는 윤기엽, 2013 『고려 혼전(魂殿)의 설치와 기능』 『한국사상사학』 45, 123-151면 참조.

43) 조선시대 혼전의 제향과 상식에 대해서는 이욱, 2017 『조선시대 국왕의 죽음과 상장례』, 민속원, 214-217면 참조.

시간대에 상관없이 차와 다과를 간단히 올리는 다례(茶禮)도 행해졌는데, 왕실 인물로서 이 주다례와 다례를 혼전에서 최초로 행한 이가 바로 정희왕후로 그 시기가 세조 첫 기일 두 달 전이란 사실도 주목된다.⁴⁴⁾

조선 전기에는 3년의 상례 기간 동안 시신을 안치한 빈전 진향(進香) 외에는 왕실 여성들이 공식적으로 상례에 참여할 수 있는 의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⁴⁵⁾ 빈전 진향 또한 공주의 예만 있었을 뿐, 세조 이전 왕후가 왕보다 일찍 사망해 왕후의 빈전 진향에 대한 전례가 없었다. 이에 따라, 예종은 고례(古例)를 살펴 정희왕후가 세조 빈전에 별도로 친히 진향하는 예를 마련하도록 한 바 있다.⁴⁶⁾ 장례 후 빈전이 폐지되고 혼전이 설치된 상황에서 정희왕후는 고례를 찾아 전례 없이 빈전에 친히 진향을 행한 것처럼 왕실 여성의 혼전에 대한 별도의 의례를 마련해 망자가 된 남편 세조에게 평시와 같이 예를 표하고자 했을 것이다.

제사에 차를 쓰는 것은 유교식 제례법이 아닌, “살아 있는 사람의 뜻으로 조상을 섬기는 것(茶用生人意事之)”이었다.⁴⁷⁾ 제물의 일종으로 차를 제사상에 올리거나 ‘점다(點茶)’ 또는 ‘봉다(奉茶)’처럼 상·제례 의례절차의 일부로 편입되던 것에서, 조선 초 왕실 의례로 정립된 주다례와 다례는 차와 다과를 바치는 의례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형태를 띠었다.⁴⁸⁾ 이러한 주다례와 다례는 국가

44) 『睿宗實錄』 권6, 1469년 7월 9일 庚寅.

45) 신지혜, 2011 『조선 후기 대비의 상장례 참여확대와 의례공간의 변화』 『장서각』 26, 140면. 세종대에 시신을 안치한 빈전에서 왕을 비롯해 왕자, 신하, 그리고 공주 등 왕실 여성이 진향(進香)하는 예를 마련한 바 있다. (『世宗實錄』 권112, 1446년 4월 3일)

46) 『睿宗實錄』 권1, 예종 즉위년 10월 1일 丁亥. 정희왕후의 세조 빈전 진향 후 수빈(粹嬪), 소훈(昭訓) 윤씨 및 대군과 군, 정현옹주 등이 연이어 빈전에 진향했는데 진향 시 화촉 등의 물건을 금으로 꾸미고 사치와 화려함이 극진 하였다. 『睿宗實錄』 권1, 예종 즉위년 9월 23일 己卯; 10월 5일 辛卯; 10월 6일 壬辰; 10월 9일 乙未; 10월 12일 戊戌; 10월 14일 庚子; 10월 18일 甲辰; 10월 30일 丙辰.

47) ‘祭祀,’ 『張子全書』 권8, 欽定四庫全書 “奠酒奠安置也 若言奠摯奠枕是也 謂注之于地非也 祭則香茶非古也 香必燔柴之意 茶用生人意事之 膝骨升首今已 用之所以達臭也”

48) 중국 고대 상례와 제사 중의 차의 사용에 대한 연구는 오원경, 2003 『婚禮, 喪祭禮中の茶禮俗』 『중국사연구』 22, 148-159면 참조; 『주자가례』 등을 준용한 고려와 조선에서 행해진 유교의 다례 연구는 이해자, 1994 『儒敎의 茶禮 研究』 『한국여성교양학회지』 1,

풍속(國俗)과 인정(人情)에서 유래한 조선 왕실의 제도로 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한 의례였는데, 고려와 조선 초 사찰에서 행해진 헌다(獻茶) 제사가 의례 정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⁴⁹⁾

조선왕실에서 다과와 차를 바치는 의례는 기록상 1446년 세종 비 소헌왕후의 능인 영릉(英陵)과 혼전인 휘덕전(輝德殿) 관련 의례를 정하면서 능사(陵司) 또는 전사(殿司), 내시(內侍)가 행하는 ‘주다의(晝茶儀)’로 처음 나타났다.⁵⁰⁾ 1447년(세종29) 세자(이후 문종)가 영릉에 나아가 친히 동 의례를 행하면서 ‘주다례’로 명명된 후, 문종과 단종 대에 상식과 함께 국왕의 능 행차 시 행해진 주요 의례로 자리 잡았다.⁵¹⁾ 반면, 이 기간 동안 혼전에서 국왕 주도의 상식 또는 제향, 진향 등 다양한 의례가 행해졌으나 주다례는 거행되지 않았다.⁵²⁾

예종 1년(1469) 윤2월 주다례에 대한 명나라 사신의 중지 요청이 있었음에도 정희왕후는 기존에 국왕의 능 행차 시 행하던 주다례를 동년 7월 부활시켜 전례 없이 혼전에서 친히 거행했다.⁵³⁾ 비유교적 전통의 주다례를 명나라 사신의 요청을 무시하고 여성인 정희왕후가 친히 거행한데서 세조의 국상 절차에 끼친 정희

191-210면 참조.

49) 1724년 우의정 조태억은 영조의 주다례 참석에 대해 “『주자가례』에도 없는 국가 풍속에서 생긴 제도에 불과한데도 온 힘을 다하여 여기에 참석하신다”며 비판하고 있다. 『承政院日記』 영조 즉위년 10월 30일 庚子. 정영선에 따르면 조선 제사다례의 정립에 왕실의 깃다(喫茶) 생활과 다공(茶供)의 제도화, 불교의 헌다제사, 『주자가례』, 수양의 수단으로 차를 애호한 유학자들의 다도관 등 다양한 요소가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 중에서도 사찰의 헌다제사는 유교적 예제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조선 초기에 조선왕실 제사다례 예속(禮俗)의 성립과 정착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영선, 2006 『조선 왕실祭祀茶禮의 禮制 성립과 그 배경에 관한 고찰』 『유교사상문화연구』 25, 55-93면 참조.

50) 『世宗實錄』 권113, 세종 28년 7월 19일 乙酉.

51) 『世宗實錄』 권115, 세종 29년 1월 19일 壬午; 3월 9일 辛未; 권116, 세종 29년 윤4월 28일 己丑. 문종과 단종 대를 거치면서 왕릉에서는 임금의 친행하여 주다례를 거행하는 것이 정착되었다. 『文宗實錄』 권4, 문종 즉위년 11월 7일 丁未; 권6, 문종 1년 3월 28일 丁卯; 권10, 문종 1년 11월 7일 辛丑; 권12, 문종 2년 2월 12일 丙子; 『端宗實錄』 권2, 단종 즉위년 8월 17일 丁丑; 권4, 단종 즉위년 10월 19일 丁未; 권11, 단종 2년 5월 6일 丙辰.

52) 주다례가 상고할 수 있는 선례 없이 인정에서 비롯한 조선왕실의 독자적 제례의식이란 점을 고려할 때, 신주를 모시고 유교적 제향을 행하는 혼전보다는 시신을 모신 왕릉에서 국왕이 친히 거행하기에 더욱 적합했을 것이다.

53) 명나라 사신이 주다례 정지를 청한 내용은 『睿宗實錄』 권4, 예종 1년 윤2월 9일 甲子 참조.

왕후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다. 정희왕후는 세조 빈전(殯殿) 남쪽에 부처에게 공양하기 위한 임시 가옥[供佛假屋]을 세우고, 새로 불화(佛幀)가 조성되자 점안법연(點眼法筵)을 빈전에서 베풀기도 하였으며, 발인에 승려를 참여시키는 등 세조 국상 절차에 불교적 요소를 혼용한 바 있다.⁵⁴⁾ 이를 고려할 때, 세조 장례 후 왕실 여성을 위한 별도의 혼전 의례를 마련함에 있어 사찰의 헌다 제사 예속(禮俗)의 영향과 인정에 토대한 의식인 주다례의 행례는 정희왕후의 호불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세조 어진의 봉선전과 영창전 봉안은 정희왕후가 영창전에서 최초의 주다례를 행한 약 2개월 후인 9월 3일 세조의 기일을 5일 앞두고 이뤄졌다. 기존 유교 제향의 대상물인 신주만을 봉안했던 영창전은 세조 어진을 봉안함으로써 빈전에 모셨던 시신처럼 세조의 실제적 존재를 모실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 혼전은 아침저녁으로 상식을 올려 망자를 생시처럼 모실 수 있는 의례 공간이었다. 이곳에 세조의 생시 모습을 그대로 전하는 초상화의 봉안은 나무에 망자의 이름과 지위 등의 글씨만 있는 신주를 보완할 수 있는 방편이 되었을 것이다.⁵⁵⁾ 세조 어진의 봉안으로 영창전은 조선시대에 왕의 신주와 초상을 함께 봉안한 유일한 혼전이 되었다.

세조의 첫 기일인 1469년 9월 8일 영창전에서 예종이 연제(練祭)를 지낸 후,

54) 『睿宗實錄』 권1, 1468년 9월 10일 丙寅; 권2, 1468년 11월 8일 甲子.

55) 나무관에 망자의 지위와 이름, 시호 등을 쓴 신주가 초상을 형이상(形而上)의 신적인 존재로 형상화한다면, 나와 닮은 혹은 내가 기억하는 망자의 얼굴과 신체를 묘사한 초상화는 망자를 살아있는 혹은 실재하는 존재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초상이 지닌 효력(efficacy)과 효과(effectiveness)는 초상의 대상인 인물의 존재, 즉 현존감(presence)에 대한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 초상의 현존감과 관련한 논의에서 데이비드 프리드버그와 리처드 브릴리언트는 이미지에 대한 반응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초상 등 이미지의 보편적 힘(효과)을 주장하는 반면, 로버트 마니우라와 루퍼트 셰퍼드 등의 학자들은 알프레드 겔(Alfred Gell)의 이론에 바탕 한 사례 연구를 통해 이미지에 대한 반응이 보편적이지 않고 사회 문화적 맥락 하에서 작동함을 주장한다. David Freedberg, 1991 *The Power of Images: Studies in the History and Theory of Respons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Richard Brilliant, 1991 *Portraitur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Robert Maniura and Rupert Shepherd, 2006 "Introduction," *Presence: The Inherence of the Prototype within Images and Other Objects*, Adershot: Ashgate, pp.17-19.

9월 17일에는 예종의 주다례와 정희왕후의 다례가 행해졌다.⁵⁶⁾ 정희왕후가 처음 주다례를 행한 2달 뒤 예종도 세조 혼전에서 직접 주다례를 거행하면서, 주다례는 왕과 왕비를 비롯한 왕실 가족이 중심이 되어 혼전에서 행하는 의례로 정립되었다. 점심(午正)이란 특정 시간대에 행해지는 주다례 외에도 시간대에 상관 없이 차와 다과를 고인에게 간단히 올리는 의식인 ‘다례’를 정희왕후가 세조 혼전에서 처음 행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⁵⁷⁾

1470년(성종 1) 12월 세조의 상례기간이 끝나 영창전에 모시던 신주를 종묘로 부묘하면서 영창전은 혼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되었다. 이 때 영창전에 봉안했던 세조어진은 선원전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영창전 이후 혼전에 어진이 봉안된 사례는 더 이상 없으나 정희왕후가 처음 혼전에서 행한 주다례와 다례의 실행은 조선 말기까지 이어졌다.⁵⁸⁾ 이처럼 정희왕후는 혼전에서 왕실 여성이 주다례와 다례를 실행하는 선례를 만들고 세조 어진을 봉안하는 이례적 조치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유교적 전통과 거리가 먼 이러한 조치들의 실현은 당대 정희왕후의 정치력을 반영해주며, 이들 선례가 조선 후기 혼전 의례에도 지속되고 있어 조선 왕실 의례에 끼친 정희왕후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2) 봉선전, 진전사원 전통의 계승과 혼전 기능의 수용

김수온의 『봉선사기』는 1468년 12월 세조를 장사한 후 정희왕후가 왕릉 옆에 절을 짓도록 명하고 절 동편에 진전을 세우도록 했으며, 1469년 6월에 시작해 9월에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다(그림 2).⁵⁹⁾ 그런데 『예종실록』을 살펴보면 1469년 5월 24일 봉선사의 동역제조(董役提調)를 위로하기 위해 선온(宣醞)을 내리고 있어 당시 역사(役事)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⁶⁰⁾ 1469년 4월 말 예종은 봉

56) 『睿宗實錄』 권7, 예종 1년 9월 17일 丁酉.

57) 1469년 9월 17일 영창전에서 행해진 다례는 혼전에서 행해진 다례 관련 최초의 기록이다(『睿宗實錄』 권7, 예종 1년 9월 17일 丁酉). 정희왕후는 동년 11월 11일에도 영창전에 나가 다례를 행하였다. 『睿宗實錄』 권8, 예종 1년 11월 11일 辛卯.

58) 『成宗實錄』 권174, 성종 16년 1월 4일 丁亥. 정희왕후 사후 정희왕후의 혼전인 태원전에서 성종은 주다례를 행했다.

59) 주12 참조.

선사 영전(影殿)에 참봉(參奉) 2인을 두도록 명하고 동년 5월 16일 영전의 전호를 승은전으로 하였다.⁶¹⁾ 동년 6월 말에는 봉선사를 감독하러 간 승려 학열과 학조가 영전을 헐려고 한 것을 당시 제조(提調)를 맡은 한명회와 구치관이 설득해 막은 사실이 전한다.⁶²⁾ 이렇게 영건된 진전에 동년 9월 3일 세조 어진을 봉안하고 9월 7일에는 봉선사에서 세조의 기일(忌日)을 위한 칠일불사(七日佛事)를 베풀었으며, 기일인 9월 8일 예종이 친히 행차해 광릉과 봉선사 승은전에 제사하였다.⁶³⁾ 이상의 기록을 종합하면, 세조 진전의 건립은 정희왕후의 명으로 1469년 초 봉선사 조성 시 계획되어 세조 첫 기일을 앞둔 1469년 9월 초 완공되었다.

세조 진전을 왕릉의 원찰 옆에 지은 것은 태종이 부친인 태조를 위해 목청전(穆淸殿)을 건립하고 진전 관리를 위해 송효사(崇孝寺)를 세운 선례를 떠오르게 한다.⁶⁴⁾ 이러한 진전 사원은 불교를 국교로 한 고려 왕조에서 선왕·선후의 진전에 절을 두었던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⁶⁵⁾ 세조의 수용을 봉안하고 5일 후



〈그림 2〉 광릉과 봉선사 항공사진, 국립고궁박물관 제공

60) 『睿宗實錄』 권5, 예종 1년 5월 24일 丁未. 1469년 윤2월에 봉선사 영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睿宗實錄』 권4, 1469년 윤2월 22일 丁丑; 1469년 윤2월 23일 戊寅.

61) 『睿宗實錄』 권5, 예종 1년 4월 21일 甲戌; 『睿宗實錄』 권5, 예종 1년 5월 16일 己亥.

62) 『睿宗實錄』 권6, 1469년 6월 27일 己卯.

63) 『睿宗實錄』 권7, 예종 1년 9월 8일 戊子.

64) 『世宗實錄』 권3, 세종 1년 4월 22일 丙申.

65) 『世宗實錄』 권121, 세종 30년 7월 18일 壬寅. 문소전 옆에 불당 설치 여부를 두고 여러 신하들이 반대 의견을 내는 중에 동부승지 이계전은 고려 때 선왕·선후의 진전에 반드시 사사(寺社)를 두어서 상례가 되었기 때문에 태조가 환조의 진(眞)을 흥천사에 봉안하고 문소전 불당을 옛 것 그대로 하여 고치지 않은 것이라고 논하였다. 고려왕실의 조상숭배 관련 예제에 대한 상세한 고찰과 진전사원에 대한 논의는 허홍식, 1984 『佛敎와 融合된 高麗王室의 祖上崇拜』 『동방학지』 45, 14-40면.

1469년 9월 8일 첫 기일(忌日)을 맞아 행해진 예종의 승은전(이후 봉선전) 친제와 뒤이은 정희왕후와 수빈의 승은전 행제(行祭)도 고려 왕실의 진전 기일 제사 전통을 반영한다.⁶⁶⁾ 진전 사원의 영건, 기일에 맞춘 세조 어진의 진전 봉안, 뒤이어 예종과 정희왕후가 행한 진전 제사 등은 숭불 군주인 세조의 혼령을 위해 정희왕후가 펼친 일련의 친불교적 정책이라 하겠다. 세조 이전 왕위 찬탈자였던 태종이 태조 진전 건립을 통해 왕권을 정당화하고자 한 선례를 고려할 때, 세조와 계승자인 예종의 권위 강화를 의도한 조치이기도 하였다.⁶⁷⁾

세조는 재위 후반기 중앙집권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불교적 상서(祥瑞)를 활용해 자신의 권위를 초월적으로 이미지화하고 상서에 뒤따르는 사유(赦宥)와 은전(恩典)을 통해 자비로운 모습을 강조하였다.⁶⁸⁾ 예종 즉위 후에도 고인이 된 세조의 혼령을 모신 장소나 세조를 위한 불상과 사리 등에서 상서가 지속해서 일어났다.⁶⁹⁾ 특히, 대비인 정희왕후가 세조 진전인 승은전에 제사한 날 하늘에서 사화(四花)가 내렸으며 그 다음날 천우사화(天雨四花)에 대한 하례를 행하고 있어 주목된다.⁷⁰⁾ 이 같은 상서는 정희왕후의 승은전 건립이 세조의 혼령을 불법에 귀의하게 하고 왕권을 정당화하는 목적을 넘어, 불교적 성왕(聖王)과 같은 세조의 초월적 권위를 현시(顯示)하고자 한 것임을 알려준다.

앞서 세조 진전에 참봉 2인을 두도록 한 예종의 명은 준원전·목청전 등 태조 진전의 체계적 보호와 관리를 위해 행해진 조치를 따른 것으로, 세조 진전이 영건 당시부터 태조 진전에 준한 왕실 제향 공간으로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¹⁾

66) 『睿宗實錄』 권7, 예종 1년 9월 10일 庚寅: 9월 11일 辛卯, 왕이 기일에 진전사원에 행차해 제례를 행하는 것도 불교를 국교로 한 고려왕실의 조상숭배 전통이었다. 허흥식, 앞의 논문, 14-40면 참조.

67) 태종대 태조 진전 건립을 통한 왕권의 정당화 시도에 대해서는 조인수, 2004 『조선초기 태조어진의 제작과 태조 진전의 운영: 태조, 태종대를 중심으로』, 『미술사와 시각문화』 3: 2006 『세종대의 어진과 진전』,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1, 사회 평론.

68) 박세연, 2011 『조선 초기 세조대 불교적 상서의 정치적 의미』, 『사충』 74, 25-66면.

69) 『睿宗實錄』 권1, 예종 즉위년 10월 9일 乙未: 10월 23일 己酉; 권4, 예종 1년 윤2월 29일 甲申: 권7, 8월 13일 甲子.

70) 『睿宗實錄』 권7, 예종 1년 9월 11일 辛卯: 9월 12일 壬辰.

71) 영흥부의 준원전과 개성부의 목청전에만 전직(殿直) 2인을 두고 관리하던 것을 세종 24년(1442)에 집경전, 경기전, 영송전 등 모든 태조 진전으로 확대했다. 『世宗實錄』 권96.

5년 후 성종 대에 편찬된 조선 왕조 기본 예전인 『국조오례의』(1474) 『길례(吉禮)』 ‘진전(眞殿)’조에 세조 진전인 봉선전(이전 승은전)은 태조 진전 5곳과 함께 공식 제향 공간으로 명시되었다.⁷²⁾ 이에 따라 봉선전에서는 태조 진전과 마찬가지로 속절(俗節)에 국가 공식 제향이 행해지게 되었다. 세조 사후 예종은 부왕의 ‘재조공덕(再造功德)’을 인정하며 묘호를 창업 군주에게 올리는 ‘조(祖)’를 넣어 세조로 정하였다.⁷³⁾ 이후 이뤄진 세조 진전의 건립과 국가 제향 공간으로의 명문화는 정희왕후 주도로 개국 군주인 태조 이성계와 동등한 위상과 초월적 권위를 세조에게 부여한 정책의 일환이라 하겠다.

세조 기일에 국왕의 친제가 행해진 승은전은 혼전인 영창전이 폐지된 후에는 왕과 정희왕후를 비롯한 왕실 여성이 다례를 행하는 장소로 영창전을 대신하는 모습을 보인다. 1471년(성종 2) 3월 1일 예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성종이 광릉에서 제사를 거행한 후 승은전(이후 봉선전)에 가서 다례를 행했으며, 3일 후 대왕대비인 정희왕후와 왕대비(安順王后, 예종의 계비), 인수왕비(仁粹王妃, 성종의 모)가 광릉에서 별제를 거행하고 승은전에 다례를 올렸다.⁷⁴⁾ 이후에도 세조 진전에서 왕과 삼대비의 다례 거행이 수차례 행해졌다.⁷⁵⁾

국왕과 정치권력의 핵심이었던 정희왕후를 비롯한 왕비들의 정기적 방문은 세조 진전에서의 다례 거행을 “의례화(ritualization)”하였다.⁷⁶⁾ 비록 『국조오례의』에 규정되지 않았으나 성종은 정희왕후 사후에도 광릉을 방문해 친제를 지내고 봉선전에서 다례를 행했다.⁷⁷⁾ 현왕의 봉선전 다례 거행은 연산군 대에 잠시 중

1442년 6월 22일, 봉선사의 영전에 참봉 2인을 베풀게 한 기사는 『睿宗實錄』 권5, 예종 1년 4월 21일 甲戌.

72) 『國朝五禮序例』 권1, 『吉禮』, 壇廟圖說, 眞殿.

73) 『睿宗實錄』 권1, 예종 즉위년 9월 24일 庚辰.

74) 『成宗實錄』 권9, 성종 2년 3월 1일 甲戌; 3월 4일 丁丑.

75) 『成宗實錄』 권28, 성종 4년 3월 16일 丙午; 권59, 성종 6년 9월 15일 辛酉; 권83, 성종 8년 8월 22일 丙辰; 권114, 성종 11년 2월 18일 戊辰.

76) 캐서린 벨에 따르면 의례화(ritualization)는 사회 통제와 지배를 목적으로 의례적 맥락과 행동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전략적 행위이다. 또, 권력 관계를 산출하고 타협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Catherine 1992, Bell, *Ritual Theory, Ritual Prac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74 · pp.197-223.

단되었으나, 중종반정 후 다시 시행되어 임진왜란에 따른 봉선전 소실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행해졌다.⁷⁸⁾ 중종이 봉선전 다례 거행 후 광릉 참배 일정을 잡으며 행한 삼정승과의 논의에서 어용을 모신 곳과 능침이 경중의 차이가 없다는 언급에 미루어 볼 때, 봉선전의 다례가 광릉의 위상과 차이를 두고 행해진 의례가 아님을 알 수 있다.⁷⁹⁾

봉선전 다례는 성종 대 정희왕후 주도로 행해진 것이 의례화하며 왕을 비롯한 왕실 여성이 혼전인 영창전에서 행한 것처럼 세조를 살아있을 때와 같이 모실 수 있는 제향 공간으로 봉선전의 기능을 확장하였다. 아울러, 정희왕후를 비롯한 왕실 여성들과 후대 왕의 지속적인 친행과 다례의 거행은 지방에 위치해 왕의 친제가 드물었던 태조 진전 보다 봉선전에 실질적으로 더 높은 위상과 권위를 부여해 주었다.⁸⁰⁾

4. 영창전 · 봉선전 제향이 후대 진전 제향에 미친 영향

『국조오례의』(1474년) 「길례」 ‘진전’조는 진전 제향을 원묘인 문소전의 예에 따라 속절(俗節) 제향을 행하고 소·양·돼지 등의 희생(犧牲) 없이 유밀과와 떡·과일 등을 중심으로 한 제물을 올리되, 협탁(挾卓)에 쓰이는 탕의 개수를

77) 『成宗實錄』 권232, 성종 20년 9월 19일 甲戌; 권258, 성종 22년 10월 15일 戊午.

78) 연산군 11년(1505)에는 광릉과 봉선전에 배치된 참봉도 혁파하고 두 곳의 제물(祭物)은 중에게 보내 조리하여 제사하게 하였다. 『燕山君日記』 권58, 연산 11년 5월 2일 丙戌. 중종반정 직후 중종은 봉선전의 참봉을 다시 설치했으며, 재위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다례를 거행하였다. 『中宗實錄』 권1, 중종 1년 9월 5일 辛巳; 권9, 중종 4년 윤9월 12일 辛未; 권53, 중종 20년 3월 9일 戊辰.

79) 『中宗實錄』 권53, 중종 20년 3월 2일 辛酉.

80) 세종대 이후 조선전기 왕들의 태조진전 친제는 목청전을 제외하면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 목청전의 경우에도 봉선전에 비해 지속적인 친제가 행해지지 못했다. 목청전의 경우 성종대 친제 1회, 중종대 봉선전의 예를 따라 다례와 작헌례가 총 3-4회 행해진 것이 기록상 찾아진다. 『成宗實錄』 권47, 성종 5년 9월 27일 己卯; 『中宗實錄』 권57, 중종 21년 7월 17일 戊戌; 권63, 중종 23년 9월 28일 丁酉; 권77, 중종 29년 7월 14일 己卯; 권80, 중종 30년 9월 14일 壬申.

원묘의 6기에서 3기로 줄임으로써 차이를 두었다.⁸¹⁾ 공식 진전이 된 봉선전은 속절과 삭망 등 정기 제향에서 태조 진전처럼 『국조오례의』에 정해진 진전 제향과 제물의 규례를 따랐다.

그런데 진전 제향 의식 중 ‘헌례(獻禮)’를 행하는 재관(齋官)과 술 등 제물의 사용 여부에 있어 봉선전은 태조 진전과 차이를 보인다. 관찰사(觀察使) 또는 소재읍(所在邑)의 장관(長官)이 헌관(獻官)이 된 태조 진전과 달리 봉선전은 산릉 제향의 섭사(攝事)와 동일한 이품(二品) 관원이 헌관으로 참여했다.⁸²⁾ 『국조오례의』에 명문화되지는 않았으나 『실록』에서 예종이 봉선전 제향에 술의 사용을 금하고 성종은 차를 대신 사용할 것을 명한 기록들이 찾아진다.⁸³⁾ 이 같은 전교는 세조 왕릉의 원찰인 봉선사 동편에 세워진 봉선전의 입지 조건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사찰과의 인접성과 세조와 정희왕후의 숭불 성향으로 봉선전에는 육식을 배제한 소선(素膳)이 또한 올려졌다.⁸⁴⁾ 한편, 앞 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봉선전은 속절의 공식 제향 외에도 세조 혼전인 영창전의 기능을 대신해 국왕과 대비 등 왕실 여성들이 친행해 차와 다과를 바치는 다례(또는 주다례)를 거행하는 장소로 자리 잡았다. 이로써, 봉선전은 제향 시 차를 올리고 다례가 거행된 조선조 최초의 진전이 되었다.

임진왜란으로 광릉의 봉선전이 소실되고 광해군 대 강화도에 재건된 봉선전 역시 병자호란으로 파괴되었으나, 봉선전에서 행한 의례의 전통은 조선 후기 진전 제향 및 이를 위한 제물과 제기의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 조선 후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피해를 복구하면서 진전 제도 또한 새롭게 정비되었는데 한양의 공식 진전으로 영희전(永禧殿), 외방진전으로 장녕전(長寧殿)과 화령전(華寧

81) 『國朝五禮序例』 권1, 「吉禮」, 文昭殿懿廟四時俗節 및 文昭殿懿廟朔望先故事由移還安.

82) 위의 책, 「吉禮」, 齋官.

83) 예종은 승은전 제사 시 술을 사용하지 말 것을 명하였으며 성종은 봉선전의 대소 제사에 술을 사용하지 말고 차로 대신하도록 전교하였다. 『睿宗實錄』 권6, 예종 1년 7월 13일 甲午; 『成宗實錄』 권40, 성종 5년 3월 14일 己亥.

84) 1637년 인조는 예조가 올린대로 외방 진전과 왕릉의 전통에 따라 원종어진 제향을 위한 제물로 소선(素膳)의 사용을 결정하였다. 태조진전 제향에서는 희생을 사용한 탕을 올렸기에 예조가 언급한 진전에서의 소선 사용은 봉선전의 사례를 일반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承政院日記』 권55, 인조 15년 1월 9일 己酉.

殿), 궁궐 내 비공식 진전으로 선원전(璿源殿)이 건립되었다.⁸⁵⁾ 조선 후기 대표적 공식 진전인 영희전은 태조와 세조, 원종의 어진을 봉안하고 숙종 대 이후 정기적인 왕의 작헌례와 친제가 정기적으로 행해지며 종묘에 비견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제향공간으로 자리 잡았다.⁸⁶⁾

조선 후기 편찬된 『속오례의』와 『춘관통고』 등의 전례서에 따르면, 조선 전기에 설립된 태조 진전과 달리 영희전 제향 시에 올리는 제물에 차(茶)가 포함되고 관련 기물인 다종(茶鍾)과 다병(茶瓶)이 사용되었으며 소탕(素湯)을 올리고 있어 주목된다.⁸⁷⁾ 제상에 차를 올리는 것은 왕실 의례인 빈례(賓禮)와 진찬·진연의 ‘진다(進茶)’ 의식의 반영, 혹은 『주자가례』의 영향 등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⁸⁸⁾ 그런데 사찰에 인접한 위치와 세조·정희왕후의 호불성향으로 육선(肉膳)의 사용을 배제하고 차로 술을 대신한 봉선전 제향의 전통과 영희전에 봉선전의 세조 어진이 봉안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영희전 제물과 의식에 세조 진전 제향이 전례로 적잖이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⁸⁹⁾ 이러한 영희전 제향은 조선 후기 설립된 또 다른 진전인 장녕전과 화령전 제향의 기준이 되었다.

한편, 궁궐 내 왕실 가족 중심의 제향 공간으로 건립된 선원전에서는 봉안된 왕의 탄신일에 정기적으로 다례가, 이환안 시에는 작헌례가 행해졌다.⁹⁰⁾ 조선

85) 영희전과 달리 선원전 의례는 조선후기에 편찬된 『國朝續五禮儀』와 『春官通考』 등의 국가전례서에 편입되지 못했다. 유재빈은 이 같은 사실에 토대해 영희전 진전 의례를 국행 의례, 선원전 의례는 왕실 내행 의례로 구분한 바 있다. 유재빈, 2011 『조선 후기 어진 관계 의례 연구: 의례를 통해 본 어진의 기능』 『미술사와 시각 문화』 10, 80-81면. 한편 진전에 대해 공식 진전과 비공식 진전으로 구분하고 관련 진전 제도의 발전 과정과 의례 및 제물·제기에 대해 분석한 연구로는 Myenghee Son, 2018 “Like Life: Royal Portraits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in Ritual Context,” University of Kansas, Ph.D. diss. 참조.

86) *Ibid.*, pp.72-76.

87) 『國朝續五禮儀』 권1, 「序例」, 永禧殿俗節; 『春官通考』 권24, 「眞殿」, ‘永禧殿’ 및 권25 「眞殿」, ‘璿源殿」; 『永禧殿志』, 「永禧殿儀仗祭器膳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88) 정영선, 앞의 논문, 74-89면 참조.

89) 영조대 영희전 제향에 대한 육선 사용의 배제 결정은 왕실 재정에 대한 고려도 깔려 있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이육, 2016 『조선시대 망자를 위한 음식: 국상을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29, 226면 참조.

후기 선원전에서의 다례 거행은 1720년 숙종이 승하하자 선원전에 숙종 어진을 봉안 한 뒤 인원왕후(仁元王后, 1687-1757)가 다례를 행하면서 시작되었고, 영조가 이어 다례를 행하면서 정례화 되었다.⁹¹⁾ 대비 등 왕실 여성과 국왕이 중심이 되어 진전에 친히 다례를 거행한 것은 세조 혼전이었던 영창전의 폐지 이후 예종과 대비(정희왕후) 등이 봉선전으로 친행해 다례를 행한 전례를 상기시킨다. 봉선전 다례가 정희왕후 사후에는 왕실 여성의 참여가 줄어들고 국왕의 봉선전 친행 시 행해진 의례의 면모를 띠지만, 조선 후기 선원전 다례는 국왕과 왕실 여성이 주축이 된 가인례(家人禮)로 19세기 후반까지 지속되었다.⁹²⁾ 가인례로 행해졌기에 선원전 다례는 제물과 제기의 준비에서 제상에 올리는 제반 과정이 대비와 왕비 등 왕실 여성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⁹³⁾

선원전 다례는 왕실 가족 중심의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의례란 성격은 유지하면서도, 사찰에 위치한 봉선전의 다례와는 제물을 달리하였다. 다과류와 차 위주의 봉선전 다례와 달리, 선원전 다례는 왕이 생전 왕실 잔치 때 받았던 잔칫상 처럼 옥·금·은 등의 값비싼 재질의 제기에 육류와 어류를 포함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각종 산해진미를 제물로 올렸다.⁹⁴⁾ 또한 선원전의 다례는 차를 바치는 ‘진다(進茶)’ 절차가 ‘헌잔(獻盞)’에 이어 행해졌다.⁹⁵⁾ 망자가 평상시에 좋아

90) 『太常志』 권2(1873), 『祀典』. 숙종 사후 선원전에 숙종 어진이 봉안된 후 영조, 정조, 순조, 익종, 헌종의 어진이 고종 때까지 차례로 봉안되었다. 한편, 대한제국기에는 태조어진이 추가적으로 1실에 모셔졌다.

91) 『日省錄』, 순조 2년(1802) 2월 29일 庚午.

92) 『純祖實錄』 권4, 순조 2년 7월 26일 甲午. 고종 대인 1873년 편찬된 봉상시 관련 조직과 업무를 정리한 『太常志』 또한 선원전의 誕辰茶禮 시 봉상시에서는 단지 祭酒 만을 奉進할 뿐이라고 적고 있어 19세기 후반까지도 의례 준비와 행례를 대내에서 가인례로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太常志』 권2(1873년), ‘璿源殿.’ 대한제국 시기 선원전과 선원전 다례의 성격과 위상은 변화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회에 논하도록 하겠다.

93) 조선 후기 왕비와 대비의 행장에는 진전 제물과 제기의 준비부터 진열까지 손수 챙긴 것에 대한 미덕을 칭송하는 내용이 적혀있다. 『英祖實錄』 권89, 영조 33년 3월 12일 癸卯; 『哲宗實錄』 권9, 철종 8년 12월 17일 甲子; 『高宗實錄』 권27, 고종 27년 8월 30일 丁卯; 권44, 고종 41년 3월 15일.

94) 선원전 다례의 왕실 가족 중심과 비공식적 성격에 대한 논의와 이에 따른 제물과 제기구성 등에 대한 논의는 Myenghee Son, *op.cit.*, pp.99-118 참조.

하던 물증으로 제상을 차리고 살아 있을 때 진연(진찬) 등의 행례처럼 헌례와 함께 진다례를 의식 절차에 넣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선원전은 봉선전이 세조 혼전인 영창전을 대신했던 선례처럼, 부모 이후 폐지되는 혼전의 기능을 계승해 국왕과 왕실인물의 다례 거행장소로 망자가 된 왕을 살아있을 때처럼 모시는 율내의 상시 의례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세조의 첫 기일 5일 전인 1469년 9월 3일 혼전인 영창전과 진전인 승은전(이후 봉선전)에 세조 어진을 봉안한 기록에 주목해 두 봉안처의 제향 공간으로서의 성격과 세조 어진 봉안의 의미, 영창전과 봉선전 의례가 후대 진전 의례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혼전에 어진을 봉안하고 왕릉의 원찰 옆에 별도로 진전을 건립한 것은 조선 전기에도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불교적 전통에 토대한 이 같은 일을 주도한 인물은 세조의 비 정희왕후였다. 정희왕후는 세조 연간 국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으며 세조 사후 성종 초까지 국정을 이끌었다. 세조의 최측근이자 세조 사후 원상으로 활약한 한명회 등 원훈대신과 정희왕후의 밀접한 관계와 협력은 호불 군주인 세조를 위해 정희왕후의 친불교적 정책이 실현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한편, 정희왕후는 1472년과 1476년 두 차례에 걸친 세조 어진 제작에도 영향을 미쳤다. 1472년에는 세조와 요절한 두 아들 예종과 덕종, 소헌왕후의 영정과 함께 본인의 영정도 제작하고 있어 주목된다. 선원전으로 이안된 영창전본을 비롯한 세조 어진들은 임진왜란 때 모두 소실되었으나, 광릉의 진전에 봉안된 세조 어진은 전란의 병화를 피해 태조 진전의 어진과 함께 조선 전기 국왕 초상 중 유일하게 살아남으며 1908년까지 영희전 제2실에 모셔져 국

95) 『笏記陳設圖』, 『瑤源殿茶禮親行笏記』 및 『瑤源殿酌獻禮親行笏記』(1937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가 제향의 대상이 되었다.

1469년 승은전과 함께 세조 어진을 봉안한 영창전은 혼전으로 신주를 모신 유교식 예제의 공간이나 시신을 모신 빈전처럼 망자를 생시와 같은 방식으로 섬기는 과도기적 상례의 단계를 보이는 장소였다. 정희왕후는 세조에게 생시와 같이 차와 다과를 올리는 주다례와 다례를 처음 혼전에서 설행해 왕실 여성이 혼전에서 주다례와 다례를 행하는 선례를 만들었다. 세조 어진의 봉안으로 혼전인 영창전은 형이상의 신주를 보완해 세조의 실제적 존재를 모실 수 있게 되었다. 어진의 혼전 봉안은 유불이 혼용된 고려 혼전의 전통을 반영하며 정희왕후란 인물의 숭불 성향과 세조 상례에 끼친 영향력을 보여준다.

봉선사에 세조 진전의 건립, 첫 기일 직전 어진의 봉안, 기일에 행해진 예종의 친제와 뒤이은 정희왕후의 제사 등은 숭불 군주인 세조의 혼령을 위해 정희왕후가 주도한 친불교적 정책이었다. 정희왕후의 세조 진전 건립 및 왕과 대비 등의 지속된 행차와 제향의 거행은 불교적 성왕과 같은 세조의 초월적 권위를 현시해주었다. 세조 진전은 건립 초부터 태조 진전에 준해 관리 제도를 만들고 제향을 행했는데 성종 대 편찬된 『국조오례의』에 국가 제향 공간으로 명문화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과 의례 행위는 세조에게 개국 군주인 태조 이성계와 동등한 위상과 초월적 권위를 부여하였다.

세조 신주의 부모에 따라 혼전이 폐지된 후, 정희왕후를 비롯한 왕실 여성과 예종 등이 친행해 다례(주다례) 의식을 행하면서 봉선전은 정기적인 속절 제향 외에도 국왕과 왕실 여성의 다례 거행 장소로 자리 잡았다. 『국조오례의』에 봉선전 다례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중종 대까지 국왕의 광릉 친제와 봉선전 다례가 지속해서 행해졌다. 다례의 거행은 봉선전을 외방 진전을 넘어 부모로 폐지된 혼전의 기능을 계승해 왕과 왕실 여성이 세조를 살아 있을 때처럼 모실 수 있는 제향 공간으로 기능을 확장해 주었다.

임진왜란으로 광릉의 봉선전이 소실되고 광해군대 강화도에 재건된 봉선전 역시 병자호란으로 파괴되었으나, 봉선전에서 행한 의례의 전통은 조선 후기 진전 제향 및 이를 위한 제물과 제기의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 조선 후기 대표적 진

전인 영희전의 제물로 차와 소선이 올려지고, 다례가 조선 후기 월내 비공식 진전인 선원전의 대표적 의례로 자리 잡은 점 등은 정희왕후 주도로 이뤄진 영창전과 봉선전의 의례가 선례로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영창전, 봉선전, 세조 혼전, 세조 진전, 정희왕후, 다례, 왕실 의례, 제향

투고일(2020. 12. 4), 심사시작일(2020. 12. 8), 심사완료일(2020. 12. 28)

〈Abstract〉

Two Places of Worship Enshrining Portraits of King Sejo
 - The Function of the Spirit Hall and Portrait Hall of King Sejo and the
 Meaning of Rites in the Halls -

Son, Myenghee(Myeonghui) *

Portrait paintings of King Sejo (r. 1455-1468) were enshrined in the spirit hall, Yeongchangjeon (永昌殿) and the portrait hall, Sungeunjeon(崇恩殿) for the king on the third day of the ninth month of 1469. Even during the early Joseon period, it was rare to enshrine royal portraits in either spirit halls or “outside portrait halls (外方眞殿)” in the provinces, because the use of portraits for worship was rooted in Buddhist tradition, not Confucianism, the ruling ideology of the Joseon Dynasty. It was Queen Dowager Jeonghui (1418-1483), consort of King Sejo who had portraits installed in the two halls. Right after the death of King Sejo, Queen Dowager Jeonghui had a great influence on affairs of state during the reign of King Yejong, her son and governed the state as the regent during the early reign of King Seongjong, her grandson. The queen dowager led the enshrinement of portraits of King Sejo in the two places of worship, which was the pro-Buddhist action, for herself as well as her late husband, Sejo, both of whom worshipped Buddha.

A spirit hall was a ritual place showing the transitional stage in royal funeral rites. A spirit tablet of the dead, the proper object of worship in Confucianism, was installed but served as if he/she were alive in the same way as the corpse in a mortuary hall. Queen Dowager Jeonghui had a portrait of King Sejo enshrined in the spirit hall of the king around the first anniversary of his death. This action reflects the royal ancestor worship of the Goryeo Dynasty combining Buddhist and Confucian traditions. The queen dowager was the first person who performed the tea ritual, *darye*(茶禮) in a spirit hall during the Joseon Dynasty. Her performance established a precedent for the king and royal women

* Curator,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to perform tea rituals in a spirit hall.

Queen Dowager Jeonghui also ordered the portrait hall of King Sejo to be built in the Buddhist temple titled Bongseonsa(奉先寺), which was constructed to support and guard the tomb of King Sejo. After enshrining the portrait of King Sejo in the portrait hall at the same time as in the spirit hall, King Yejong and the queen dowager respectively visited the hall and made offerings to the portrait in person. The management and rites of the portrait hall of King Sejo were constituted as being at the same level as those of the King Taejo portrait halls in the *Five Rites of the State*(國朝五禮儀), the first official handbook of the state rites of Joseon published in 1474. These actions led by the queen dowager gave the late King Sejo the same authority and transcendent status as the dynastic founding father, King Taejo.

After the abolishment of the spirit hall of King Sejo, Queen Dowager Jeonghui and other royal consorts as well as the king personally visited the portrait hall of King Sejo and performed tea rituals therein. Even though tea rituals for the hall were not specified in the *Five Rites of the State*, succeeding kings continued to perform tea rituals in the portrait hall until the reign of King Jungjong. The performance of tea rituals made the King Sejo portrait hall carry on the function of the King Sejo spirit hall, and thus royal female members as well as kings could serve the late king as if he were alive in the portrait hall.

Because of the Japanese Invasions, the portrait hall of King Sejo was destroyed. However, the tradition of the King Sejo portrait hall rites exerted an influence on portrait halls established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Tea was offered and meat was excluded in the offering food for the rites of Yeonghuijeon(永禧殿), the official portrait hall of the late Joseon period, whereas tea rituals were regularly performed in Seonwonjeon(璿源殿) of the late Joseon period, the informal portrait hall in the palace, by royal female members as well as kings.

Key Words : portraits of King Sejo, portrait hall, spirit hall, royal ancestor rituals, Queen Dowager Jeonghui, state rites of Joseon, tea rituals, darye, Yeongchangeon, Bongseonjeon